

〈제 750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기념 봉사활동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3일, 탐방 등산객을 대상으로 생수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7년 동안 제한됐던 무등산 인왕봉 정상부 상시개방 첫 날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공군 및 국립공원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축하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어 무척이나 기쁘다"며,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생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매년 명절마다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경기침체 및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싣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조선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는 조선대학교 우주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2일 조선대 본관 청출어룸에서 ‘CSU Space Challenge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1천만원을 기탁했다.

‘CSU Space Challenge’ 기금은 조선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기금 중 하나로, 신성장동력

사업인 우주항공 분야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조선대학교의 우주산업 분야 활약이 대단하다”며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지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꾸준히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나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가 지역 수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공략에 나섰다.

광주·제주 자율형MC 사업기획 전략회의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회원사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된 이번 사업은 지난 16-20일 3박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됐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시장조사·시장성평가 ▲유망바이어발굴·매칭 ▲수출 상담회 진행 ▲전시회 참관 등의 프로그램을 펼쳤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지역본부장은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고물가 위기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광주지역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 증대를 예상하며, 이후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관내 수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산업단지 맞춤형 안전체계지원 강화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18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지역의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메시지 전파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중대재해 사이렌)을 안내하고 위험성 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명확한 안전메시지 전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위문활동 실시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김무영)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웃사랑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행복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 하남공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총 400만원을 전달했다.

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병원

◆ 113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26일 개원 113주년, 어린이병원 개원 6주년 기념식을 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역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성택 전남대병원 이사장·전남대학교 총장, 안영근 병원장, 김영옥 전남대어린이병원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와 중증·

필수 의료의 핵심이 되는 병원, 진료·교육·연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영근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한전KPS

◆추석명절 맞아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 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사흘간 나주와 광주, 목포에 위치한 동지요양원, 광주희망장애인복지회,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사랑의 한마음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전KPS는 지난 2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인정받아

종합 정비공사에 더해 4개 발전소의 경상정비 및 부품 가공정비 역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돼 120억원의 추가 매출까지 확보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스사고예방 캠페인



추석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추석명절 시민생활 안전종합대책에 발맞춰 (주)해양에너지는 22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가스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가스사용량이 급증하는 연휴기간 동안 가스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명절대비 재래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했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는 “추석 명절대비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다중이용시설의 특별 점검 시행과 공동주택, 대용량 고객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연휴기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발표 (9.14)

□ 경총이 9월 14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10여 년간 고령자 고용이 양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2022년 기준)

□ 법정 정년연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기업 비용부담 증가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침

- ① (기업 비용부담 증가) 연공형 임금체계 따른 임금-생산성간 괴리로 기업부담 증가
-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
- ③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 심화)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 악화

□ 지난 10여 년간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와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일본 사례*나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9.19)

-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2023년 1.5%, 2024년 2.1%로 전망

※ 2023년과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모두 지난 '23.6월 전망치와 동일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4%, 2024년 2.6%가 될 것으로 전망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과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모두 지난 '23.6월 전망치와 동일

- OECD는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예상대비 급격한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진단

①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 측면에서 불확실성 존재

-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긴축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 둔화, 기업 재무여건 악화, 신흥시장 부진 등 추가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②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의 공급 충격 발생 가능성도 우려

- 석유·석탄·가스 등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아직 높고, 엘니노 현상, 러-우 전쟁 등으로 식량 가격 상승 우려도 지속

③ 예상대비 급격한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역시 주요 하방리스크

- 소비자심리 악화, 부동산 시장 문제(낮은 유동성, 높은 레버리지 등에 따른 디폴트리스크)와 함께 과거대비 높은 부채로 재정정책 지원의 범위와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

- OECD는 정책방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 억제를 위한 제약적 통화정책, 그간 확장되었던 재정의 정상화, 구조적 개혁 노력 등을 권고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 (9.20)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3%, 2024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
- ADB는 우리나라의 2023년, 2024년 성장률에 대해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여 지난 7월 전망을 유지

Ⅲ. 노동경제동향

-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물가상승률 안정세(2.3%) 등을 근거로 2023년 3.3%, 2024년 2.2%로 전망*

*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2023년은 0.2%p 하향 조정, 2024년은 0.3%p 하향 조정됨.

- 한편, 아시아 46개*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을 2023년 4.7%, 2024년 4.8%로 전망

* ADB의 경제전망은 49개 아시아 역내 국가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

- ADB는 20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을 근거로 직전 7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조정함. 2024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조정함.

-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2023년 3.6%로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024년의 경우 3.5%로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0.1%p 상향조정함.

◆ 한국은행, 「202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9.20)

- 202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1.1%), 농림수산물(7.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9% 상승(전년동월대비 1.0% 상승)

2. 노사 동향

◆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 8 한국노총과의 면담에 이어 9. 18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노조법 제2조 · 3조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추진 예고

※ 9월 국회 본회의 일정 : 9. 21, 9. 25(필요시)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주장하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발언

○ 한편, 노동계는 양 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집단행동 지속

- 양 노총은 9. 20 국제노총 등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 이라고 주장

- 또한, 민주노총은 국회 앞 노숙 농성 등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주력하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

○ 경총은 9. 21 정기국회 본회의에 앞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담긴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

- 경총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혼란과 함께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 지적

- 또한,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원인이었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될 시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

Ⅲ. 노동경제동향

◆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 개정

- 정부는 9. 19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금번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노조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고, 노조에 적극 동참 당부